

2017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제5차 지원심의총평

-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 2017년도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- 제5차 지원신청
- 회의일시 : 2017. 12. 27(수) 10:00~16:00
- 회의장소 :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

가. 2017년도 창작활성화 지원사업(대관료 지원사업) 제 5차 공모에는 연극 69, 무용 6, 음악 76, 전통예술 11건을 합쳐서 총 162건이 접수되었습니다. 전체 접수 건들 중에서 2018년에 진행하는 공연 및 보조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단체 등을 제외하고 심의를 진행 하였습니다. 심의의 진행과정에서 심의기준 및 방법에 대한 안내에 이어서 관련 질문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.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'공연작품의 예술성(50%)', '공연단체의 역량(30%)', '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 (20%)'로 구성되었습니다. 심의평가방법으로는 지원신청서 검토에 따른 채점제를 적용하기로 하고, 각 심의위원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작품에 따라서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배점을 하였습니다. 또한 심의의 엄격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심의 제척사유들에 따라 심의 회피 제도를 도입하였으며, 각 심의위원은 공정심의 서약서에 서약하였습니다. 이어서 심의내용 및 방법과 관련된 보다 심층적인 질문들이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으며, 심의과정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지원신청서 사전 검토
- 지원 제외대상 및 지원규정 위반 단체(개인) 제외
- 전체 신청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
- 기본적 심의기준 공유
- 분야별 특성에 근거한 세부 기준 공유
- 분야별 심층토의
- 전체 토론 및 채점
- 기본적인 심의기준 이외에도, 장르별 특성에 근거한 기준을 각 장르 해당위원들의 합의하에 결정하며, 이를 타 장르 심의위원들은 존중

나. 이상과 같은 심의기준과 방법으로 토의 및 채점을 하였으며, 장르별로 책정된 예산안에서 고득점 순에 따라서 연극 35(51%), 무용 6(100%), 음악42(55%), 전통 예술10(91%), 총 93(57%)건을 선정하였습니다. 2017년 마지막 대관료 지원사업

이기에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 전원이 가능한 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면서, 최대한 많은 단체(개인)에게 지원금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한 단체(개인)들에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격려의 박수를 또한 보내며 다음 기회에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.

다.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각 장르별 심의기준과 심의 고려 사항 및 총평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연극 분야

- 대관료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단체(개인) 중에서도, 특히 공연작품의 예술성이 높은 단체(개인) 및 작품을 우선시함.
- 3년간의 작품활동을 살펴보고, 지속성 및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를 우선시함.
-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단체의 경우, 지역연극의 활성화, 저변확대 및 기여도를 배려하여 지역적 안배를 시행하였음.
- 소액 신청을 한 신생단체(개인)들에 대해서도 격려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배려하였음.
- 연극과 뮤지컬 분야를 형평성 있게 분배하고자 노력하였음. 다만 제작 규모, 공연 내용 및 목적, 대관 기간, 극장 등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예술성보다 상업성과 대중성이 강한 공연들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음.
- 마지막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들이 지원하지 않아 아쉬움.

무용 분야

- 무용 분야의 지원신청건수가 적어 유감.
- 공연단체의 역량, 예술성, 성취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함.
- 대관료의 지원액수가 적은 것이 아쉬움.
- 한국 무용중 전통 춤 공연인 경우, 전통분야 지원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무용분야로 신청되는 혼돈이 생김으로 신청분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명시되어야 함.

음악 분야

- 스토리텔링이 없는 개인 발표회는 대체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,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인 만큼 창작부분의 사업에 치중하였음.
- 동일한 기획사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한 경우,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.
- 2018년도 일정의 단체, 서류미비 단체, 기존 선정 단체는 제외시킴.

전통 분야

- 전통에 크게 기반한 공연물들과 젊은 세대의 창작 공연들이 공존하는 상황인 것 같음.
- 전통과 창작이 조화되고 발전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는 크게 주목할 만한 공연들이 없어 아쉬움.